

전주시 봉사 적립 '어르신돌봄은행' 운영

돌봄서비스 1시간 당 1점씩 포인트 부여... 추후 본인·가족 필요 시 사용·기부 가능

전주시가 돌봄에서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노인돌봄 봉사활동을 포인트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돌봄은행'을 본격 운영한다.

전주시는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노인돌봄수요를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인 돌봄봉사자와 연계해 노인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어르신돌봄은행) 사업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르신돌봄은행'은 돌봄봉사자들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말벗과 여가활동 보조, 가사와 일상생활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활동 결과가 봉사 1시간 당 1점씩 포인트로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향후 본인 또는 가족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기부도 할 수 있다.

돌봄봉사자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회원 가입한 후 4시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돌봄대상자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봉사활동을 제공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5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어르신돌봄은행 사업 추진을 위한 돌봄봉사자 교육을 진행했다.

돌봄봉사자 및 예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암노인복지관이 주관



녹색아파트사업 협약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는 김일재 행정부지사, 김택천 전북 기후·환경네트워크 대표, 도내 30개 아파트 단지 대표, 컨설턴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정세대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식 및 에너지 진단 에너지 컨설턴트 발대식 행사를 가졌다.

한 이날 교육에는 영기육 교수(군산대 학교 사회복지학과)가 강사로 초청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운영 방안 등을 집중 교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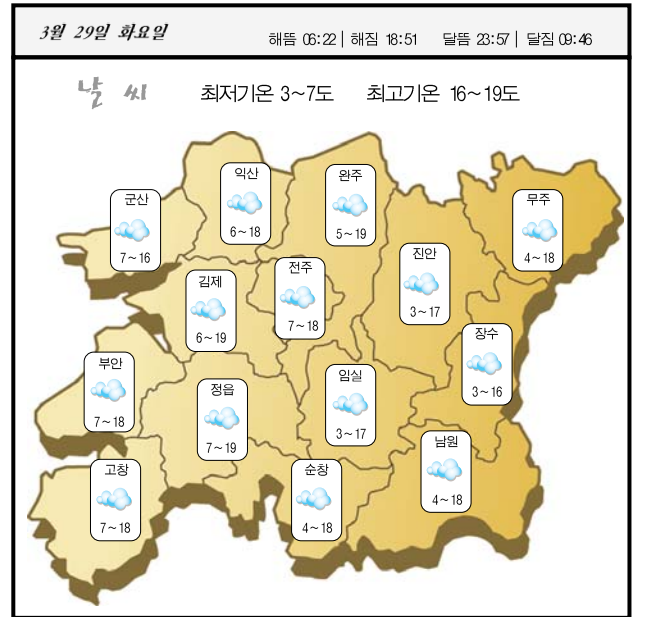
자원봉사자들은 교육수료 후 관내 만 65세 이상의 돌봄대상자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의 봉사

활동을 제공하는 등 본격적인 돌봄활동에 착수하게 된다.

서양열 금암노인복지관장은 "노인돌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고 사회공헌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돌봄문제에 대해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는 부분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성

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라북도기초관리본부(063-253-5728)로 연락하거나,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교권침해 교원 상 처 치유 시스템 운영

도교육청, 심리 상담·법률적 조언 등 지원

교권 침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교원 상 처 치유 시스템을 운영한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6건에 머물렀던 교권 침해사건이 2012년 217건, 2013년 141건, 2014년 111건, 2015년 1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최근에는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원들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만큼 교원들의 마음 회복 프로그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해 구성된 교원 상 처 치유 상담 17명의 인력을 운영하는 한편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심리 치유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교원 상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무료로 법률적 조언을 지원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정원택 전북중기청장에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정원택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56)이 128번째 전주시 명예시민이 됐다. 전주시는 28일 열린 3월 청원공감한 마당 행사에서 정원택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지난해 3월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부임한 정 청장은 취임 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호평을 받고 있다.

실제, 정 청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여파와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인해 전주시 지역경제가 침체되자 지역경제 부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시제품 제작 공간인 3D 무한 상상 카페를 개소하는 등 청년 창업 지원 및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에 힘써왔다. /김영재 기자

규제프리존, 탄소·농생명산업 발전 '기폭제'

특별법에 도 특례 9건 반영 추진... 시도지사에 완화 권한·중앙정부재정·세제 지원

규제프리존 관련 지역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제출 기한인 3월 말에 다가옴에 따라 전북도는 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 추진에 반영할 전북도 관련법안 9건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가 제출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 특례를 위한 38건(탄소20, 농생명 18)과 25건(탄소14, 농생명11)의 재정지원 사업 탄소와 농생명산업 관련 주력기업들의 추가 유치를 위한 민간 투자수요의 지속적 발굴 방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규제특례에 있어서 23건은 특별법 및 개별 법령에 반영 예정이고 15건은 부처 검토 중이며 이번에도 발굴

한 규제특례는 지역발전위 및 부처 협의 거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담겨져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행·재정적 지원기반이 될 것이다.

발의 법안에는 시도 규제프리존에 관련해 조례제정을 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에 특별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 도에서 발굴한 규제특례 9건(농생명 7, 탄소 2)이 반영되어 있다.

특별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상당한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세제지원까지 해줄 예정이어서 도내 탄소 및 농생명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 전망된다.

도는 이를 통해 도내 탄소 및 농생명 산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로 경쟁력 확보, 기업집적화로 본격적인 사업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규제특례와 재정지원사업을 추가 발굴·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면 지역위 및 관계부처에서는 5월까지 세부내용을 검토 지역·산업별 핵심규제특례 및 정부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던 기업유치가 훨씬 수월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간소화 규제 및 재정지원사업을 추가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이재백·진영호·조시온 전북대병원 교수

의학저널 NEJM 3월호 논문 게재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비교연구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재백·진영호·조시온 교수의 기고문이 세계적인 의학저널인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 3월호에 게재됐다.

NEJM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의학 잡지로 학회지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impact factor에서 56점을 기록하고 있는 부동의 세계적인 학회지로 손꼽힌다.

이번 기고문은 심폐소생술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속적 흉부압박술과 30:2 방법을 비교 연구한 것으로 조시온 교수가 제1저자, 이재백·진영호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심폐소생술은 지난 60년간 흉부압

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30:2 방법이 대세였다.

하지만 인공호흡 과정을 생략하고 연속적인 흉부압박을 하는 소생술을 지지하는 실험적인 증거가 쌓이면서 지난해 12월 니콜(Nichd) 교수 연구진이 이들을 비교한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연속적인 흉부압박 소생술과 기존의 30:2의 심폐소생술은 생존 결과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이번 기고문에서 연속적인 흉부압박이 구조자의 피로누적을 불러일으켜 흉부압박의 질이 떨어졌을 개연성과 연속적인 흉부압박 도중 시행한 인공 환기가 폐손상을 가중시켰을 개연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영재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2016년 4월 GRAND OPEN
 ◆사전운영기간 2015. 9 ~ 2016. 3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빼빼 백두대간의 모든 것



하나 백두대간 달린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www.eco-edu.or.kr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9-9 /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5760